한라반 학습 계획

일시 : 2019년 10월 5일 교사 : 김은아

목표 : 1. 상황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할 수 있다.

2. 이어 주는 말의 기능을 알고 문자에서 활용할 수 있다(작문).

3. 동의보감에 관한 글을 읽고 이해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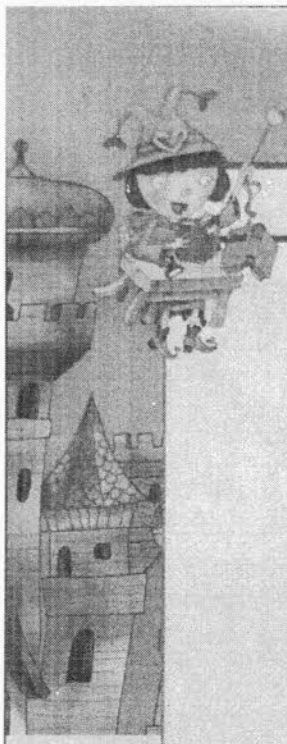
4. 8급 한자를 복습하고 읽을 수 있다.

5.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에 관련된 글을 읽고 영상을 보며 당시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교재 : 중학교 생활국어 2-2(대교), 100대 민족문화 상징, 살아있는 한국어 관용어, 초등한자,천재교육 스토리텔링 한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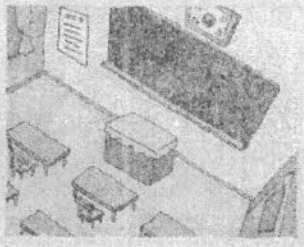
교 시	수 업 내 용
1교시 9:30-10:15	쪽지시험 숙제 확인 및 숙제 내용 공부 -한자 답맞추기, 시 확인, 동의보감 읽기자료 소리내어 읽기 관련 영상 보기(허준)
2교시 10:15-11:00	작문분반수업(이어 주는 말) 접속어, 어미를 활용하여 문장을 이어 쓰는 연습.
점심 11:00-11:20	
3교시 11:20-12:00	교과서 40~42 상황 맥락을 고려하여 의사소통 하기 65~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글쓰기
4교시 12:00-12:40	역사수업(정묘호란, 병자호란) 지난 주에 이어서 광해군 영상보기
숙제	1. 한자 문제 풀어오기 2. 관용어 읽고 공부해오기 3. 읽기자료(두레)읽어오기 4. 어휘 공부해오기

오늘 배운 내용과 숙제로 공부해 온 내용을 다음주에 **쪽지시험**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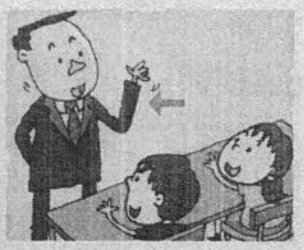


대단원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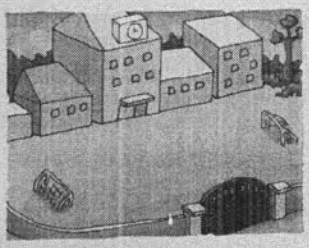
1. 그림에 맞는 한자어를 선으로 이어 봅시다.

(1) 

學校

(2) 

教室

(3) 

先生

2. 다음 보기 와 같이, 한자의 뜻과 음을 써 봅시다.

보기 中 ⇨ 가운데 중

(1) 學 ⇨ (　　)　　(2) 先 ⇨ (　　)

(3) 門 ⇨ (　　)　　(4) 長 ⇨ (　　)

3. 한자와 알맞은 뜻과 음을 선으로 이어 봅시다.

(1) 敎 • • 학교 교

(2) 校 • • 가르칠 교

4. 다음 밑줄 친 부분의 공통된 한자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가요?

- 오늘은 외삼촌의 생신입니다.
- 외계인은 우리와 다르게 생겼습니다.
- 아버지께서는 외국으로 출장을 가셨습니다.

① 長 ② 中 ③ 外 ④ 生 ⑤ 門

5. 다음 한자어의 음을 써 봅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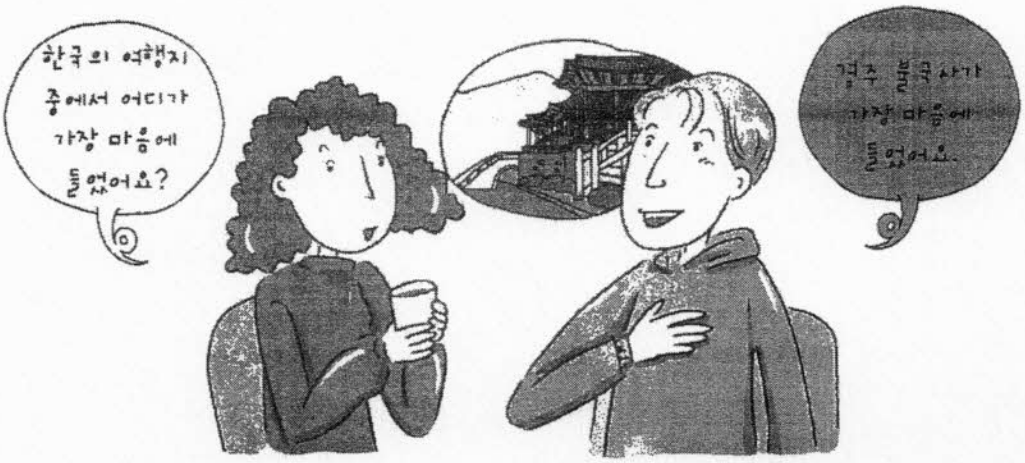
(1) 9월 2일은 내 동생 生日(　　)입니다.

(2) 우리 敎室(　　)은 집처럼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3) 운동회에서 青白(　　)으로 나누어 경기를 하였습니다.

(4) 옛날에는 임금님과 父母(　　)님과 先生(　　)님을 똑같이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대화



제 니: 에릭 씨, 요즘 얼굴 보기 힘드네요. 그동안 많이 바빴어요?

에 릭: 네, 조금 바빴어요. 여기저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제 니: 한국의 여행지 중에서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에 릭: 지난주 토요일에 간 경주 불국사가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곳이니까 제니 씨도 한번 가 보세요.

제 니: 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꼭 가 보고 싶어요.

※ 마음에 들다: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과 같아서 좋아하다

활용예문

▶ 이 옷은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 학교 근처에서 **마음에 드는** 커피숍을 찾았는데 같이 갈까요?

▶ 가: 너는 왜 민수가 **마음에 드니**?
나: 민수는 성격도 밝고 재미있잖아.

새 어휘와 문형

☐ 힘들다 ☐ 여기저기 ☐ 다녀오다 ☐ 여행지 ☐ 들다 ☐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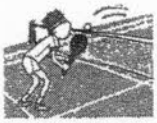
☐ 불국사 ☐ 기회 ☐ 색깔 ☐ 찾다 ☐ -중에(서) 제일/가장

함께해요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보세요. 그리고 왜 그것이 마음에 드는지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❶ 운동

수영


테니스

농구

태권도

기타 (　　)

❷ 영화

공포

멜로

코미디

액션

기타 (　　)

❸ 음악

댄스

발라드

클래식

록

기타 (　　)

❹ 색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까만색

기타 (　　)

한 걸음 더

▶ 눈에 들다 (=)　우리 언니는 눈이 높아서 **눈에 드는** 남자가 없대요.

▶ 마음을 비우다 (⇨)　욕심을 버리다
이번 대회에서는 **마음을 비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 들다
-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 상자에는 케이크가 들어 있어요.
- 감기가 들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대화

에 릭: 민수 씨,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냈어요?

민 수: 네, 잘 지냈어요. 에릭 씨는 요즘 한국 생활이 어때요?

에 릭: 아주 재미있어요.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민 수: 이제 한국 음식은 **입에 맞아요**?

에 릭: 네, 특히 불고기와 삼계탕이 제 **입에 맞아요**. 하지만 아직도 김치는 먹기 힘들어요.

민 수: 그래요? 오늘 에릭 씨와 같이 김치찌개를 먹고 싶었는데……. 빨리 매운 음식도 에릭 씨 **입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 입에 맞다: 음식이나 하는 일이 마음에 들다

활용예문

▶ 많이 드세요. 우리 집 음식이 **입에 맞았으면** 좋겠어요.

▶ 외국에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힘들었어요.

▶ 가 : 하고 싶은 일을 찾았어요?
나 : 아니요, **입에 맞는** 일을 찾기가 어려워요.

새 어휘와 문형

□ 익숙하다 □ 이제 □ 맞다 □ 특히 □ 불고기 □ 삼계탕

□ 아직도 □ 김치 □ 김치찌개 □ 외국 □ -았/었으면 좋겠다

함께해요

각 나라의 대표적인 음식을 보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해 보세요.

한 걸음 더

▶ 입이 짧다(⇨) **싫어하거나 먹지 않는 음식이 많다**
저는 **입이 짧아서**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아요.

▶ 입에 맞는 떡(⇨) **마음에 드는 일이나 물건**
입에 맞는 떡이 어디에 있어?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

▶ 맞다
- 어제 산 옷이 몸에 꼭 맞아요.
- 맞는 답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았어요.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마음에 들다 마음을 비우다 입에 맞다 입이 짧다

1 가: 어제 청바지를 샀어요?

나: 아니요. _____ 것이 없어서 안 사고 그냥 왔어요.

2 가: 신혼여행은 어땠어?

나: 모두 좋았지만 음식이 _____서 힘들었어.

3 가: 주말에 여행을 가고 싶은데 어디가 좋을까요?

나: 글쎄요. 제가 여행한 곳 중에서는 제주도가 _____.

4 가: 그 사람은 잘생겼지만 너무 말라서 _____.

나: 아마도 _____ 그런 것 같아.

5 가: 이 레스토랑 분위기가 어때요?

나: 아주 _____.

6 가: 내일 우리가 축구 경기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나: 물론이지. _____고 최선을 다하면 이길 수 있어.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_____

나: _____

이야기해요

마음에 들다 / 입에 맞다

다음을 읽고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선생님: 아사코 씨, 주말에 뭐 했어요?

아사코: 한국 친구와 같이 인사동에 가서 여기저기 구경했어요.

선생님: 그래요? 어디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사코: 전통 찻집이요. 찻집의 분위기도 좋았고 처음 마셔 본 생강차도 참 좋았어요.

선생님: 생강차는 조금 매운데 **입에 맞았어요**?

아사코: 네, 조금 매웠지만 향이 좋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감기에 걸렸을 때 마시면 좋다고 들었어요.

선생님: 맞아요. 유자차도 감기에 좋아요.

아사코: _____.

선생님: _____.

질문에 대답하세요.

1 아사코는 주말에 무엇을 했어요?

2 아사코는 왜 전통 찻집이 마음에 들었어요?

3 여러분은 감기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요?

새 어휘 ☐ 전통 찻집 ☐ 분위기 ☐ 생강차 ☐ 향 ☐ 유자차

044

두레는 왜 **생겨났을까?**

두레

"얼씨구나~~절씨구나~~~~심어보세~~심어보세~~~"

농사는 아주 힘든 노동이에요.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들은 밤낮으로 논밭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혼자서 농사짓기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옛 우리 조상들은 서로 도와가며 농사를 지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 오늘은 이 집 논일을 하고, 다음날은 저 집 논일을 하며 서로 도왔던 것이죠. 이렇게 함께 모여 일을 하는 조직을 '두레'라고 해요.

두레가 생긴 것은 조선 시대 이앙법이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면서부터예요. 이앙법이란 못자리에서 모를 어느 정도 키운 다음에 그 모를 본논으로 옮겨 심는 재배법을 말해요. 이앙법으로 농사를 지으면 튼튼한 모만 골라 심을 수 있고, 줄을 맞춰서 심기 때문에 모내기를 하기에도 편리해요.

이러한 이앙법이 널리 알려지자 우리 조상들은 두레를 만들어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이 함께 일을 하기 때문에 혼자 할 때보다 힘이 덜 들고 더 신이 났지요.

모내기에서 김매기까지 함께 일을 한 후에는 칠월 칠석이나 백중날

'호미씻이'를 했어요. 호미씻이는 여름 농사가 거의 끝났다는 것을 알리는 두레의 가장 큰 행사예요. 호미씻이는 그동안 밭과 논을 매느라 더러워진 호미를 깨끗하게 씻어 광에 걸어 둔다고 해서 생긴 이름이에요.

호미씻이가 끝나면 두레에서는 신명나는 축제를 벌였어요. 두레패끼리 힘을 겨루는 두레싸움도 벌였지요. 그리고 승부가 갈리면 '형 두레', '아우 두레', '선생 두레', '제자 두레' 식으로 서로 서열을 정했어요.

두레는 지역에 따라 두레, 돌개, 둘개, 종네 논매기, 농계, 농청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어요. 일감에 따라서는 초벌 두레, 두벌 두레, 만물 두레 등이 있었지요. 또 풀을 베는 풀베기 두레도 있었고, 여자들만으로 조직된 길쌈 두레도 있었답니다.

한라반 어휘(Vocabulary) 10/5

1. **스승 :** 자기를 가르쳐서 인도하는 사람. 좋은 책은 훌륭한 스승이다.
2. **능가 :** surpass; exceed; excel 그의 실력은 이미 스승을 능가하였다.
3. **신임 :** confidence, trust, trust 그에 대한 왕의 신임은 두터웠다.
4. **주치의 : family doctor** 지금의 내 주치의만 한 의사를 외국에선 구할 수 없을 거다.
5. **명저 :** masterpiece, masterwork, classic 이번 여름에는 다산 정약용의 명저인 《목민심서》를 읽을 것이다.
6. **간신 :** disloyal subject, treacherous subject 그는 간신의 모함으로 관직이 박탈되었다.
7. **모함 :** slander 나는 억울하게도 모함을 받아 직장을 잃었다.

한라반 쪽지시험 10/5 이름 :

<한자>

* 다음 한자를 읽어보세요.

1. 제주도는 火山으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2. 비가 많이 내려 홍水가 났어요.
3. 이번 주 日요일에 月식을 구경했어요.
4. 여기 모인 사람 절반이 男子입니다.
5. 자식은 父母를 잘 섬겨야 합니다.
6. 우리집은 ( )男 ( )女입니다.

* 밑줄 친 단어의 한자를 찾아 써보세요. (兄 木 金 日 女 火 月 水 土 父 口 弟)

7. <u>해</u>는 날마다 뜨고 져요.
8. 한라반 선생님 성함은 <u>김</u>은아이다.
9. 옛날에는 <u>나무</u>로 만들어진 우산을 썼어요.
10. 아버지와 <u>딸</u>이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11. <u>형</u>과 함께 심부름을 다녀왔습니다.

<읽기자료> 동의 보감, 정묘호란 병자호란

1. <u>이 사람</u>은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쓴 조선의 의사이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2. 조선시대에는 의사를 ( )라고 불렀다.
3. 이 사람은 어느 왕의 주치의였나요?
4. 선조의 왕위를 이은 왕은 누구인가요?
5. 광해군때 중국에서는 두 나라가 힘을 겨루고 있었는데 어느 어느 나라인가요?
6. 광해군은 위의 두 나라와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 나라의 이익을 얻기 위해 ( )외교를 했다.

<어휘>

*** 문장에 들어갈 단어를 아래에서 골라 쓰세요.**

우려 ,야심, 상황, 맥락,간섭, 귀양, 이상형, 혈액 검사, 어귀, 항복, 치욕

1. 겨울철 등산에는 눈사태와 같은 돌발적인 (　　)에 대비해야 한다.
2. 그는 (　　)도 통하지 않는 말을 주절주절 지껄였다.
3. 내 (　　)은 어머니처럼 푸근한 여성이다.
4. 나는 (　　)를 위해 피를 뽑았다.
5. 동네 (　　)로 접어들자,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6. 지나치게 폭력적인 장면은 아이들의 정서를 해칠 (　　)가 있다.
7. 그는 (　　)을 가서 유배지에서 죽었다.
8. 그는 정치에 대한 (　　)이 대단한 사람이다.
9. 제일 차 세계 대전은 독일의 (　　)으로 끝났다.
10. 일제 치하에 있던 그 세월은 우리나라 역사의 (　　)이다.
11. 남의 일에 지나친 (　　)을 하지 마라.

03_ 눈(이) 높다 04_ 마음(을) 먹다

연습해요

보기의 관용어를 넣어서 대화를 만들어 보세요.

보기
눈이 높다 눈에 익다 마음을 먹다 마음을 놓다

1 가 : 왕방 씨가 이 가방을 좋아할까요?

나 : 글쎄요. 왕방 씨는 _____ 좋아할지 잘 모르겠어요.

2 가 : 한국어 사전 좀 빌려 주세요.

나 : 여기 있어요. 저는 지금 안 쓰니까 _____고 쓰세요.

3 가 : 민수처럼 멋있는 사람이 왜 아직 여자 친구가 없어요?

나 : 아마도 _____ 그럴 거예요.

4 가 : 여기에 처음 왔는데 참 _____.

나 : 저도 그래요. 낯설지 않아요.

5 가 : 여름휴가 때 뭘 하기로 했어요?

나 : 수상 스키를 배우려고 _____.

6 가 : 이 일이 다 끝나면 _____고 쉴 수 있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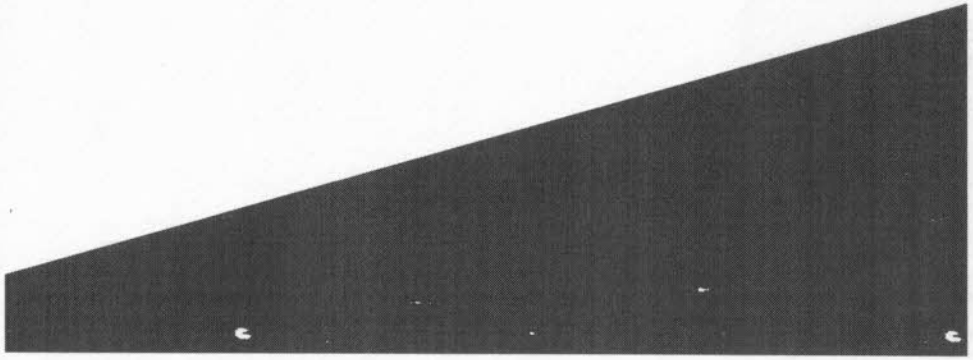
나 : 그럼요. 그러니까 빨리 일을 끝냅시다.

여러분이 대화문을 만들어 보세요.

가 : _____

나 : _____

이어 주는 말



이어 주는 말이 없으면?

떡을 먹었다. 밥을 먹었다.

배가 고팠다. 먹지 않았다.

오래 뛰었다. 목이 말랐다.

이어주는 말을 넣으면?

떡을 먹었다. 그리고 밥을 먹었다.

배가 고팠다. 그러나 먹지 않았다.

오래 뛰었다. 그래서 목이 말랐다.

이어주는 말을 넣어 한 문장으로 만들면?

떡을 먹고 밥을 먹었다.

배가 고팠지만 먹지 않았다.

오래 뛰어서 목이 말랐다.

잘못 사용된 이어 주는 말을 고쳐보자.

가뭄이 들자 마을에는 농사에 쓸 물이 부족하였다그래러나 사람들은 큰 저수지를 만서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저수지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 큰일이었으큰일이어서 누구도 삽을 들지 못하였다.

이어 주는 말이란?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와 같이 문장의 내용을 이어 주는 낱말을 **이어 주는 말**이라고 해요. '-고', '-(으)나', '-어서' 등과 같이 다른 낱말에 붙어서 문장의 내용을 연결하는 말도 **이어 주는 말**이에요.

이어주는 말 연습 문제를 풀어봅시다.

정답 :

1. 그리고
2. 그러니까
3. 그러니까
4. 그러면
5.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
6. 그런데
7. 왜냐하면
8. 그리고
9. 그런데
10. 그래서
11. 그럼
12. 그러나, 그렇지만, 하지만, 그런데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1)

가뭄이 들자 마을에는 농사에 쓸 물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저수지를 만들자고 하였다.

→ 가뭄이 들자 마을에는 농사에 쓸 물이 부족하여서 사람들은 큰 저수지를 만들자고 하였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2)

사람들은 큰 저수지를 만들자고 하였다. 그러나 저수지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 큰일이어서 어느 누구도 삽을 들지 못하였다.

→ 사람들은 큰 저수지를 만들자고 하였으나 저수지를 만드는 일은 너무나 큰일이어서 어느 누구도 삽을 들지 못하였다.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만들기(3)

마을의 한 젊은이가 저수지를 만들 자리에 막대기를 꽂았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 마을의 한 젊은이가 저수지를 만들 자리에 막대기를 꽂고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하였다.

이어 주는 말 연습 문제를 풀어 봅시다.

이어 주는 말을 적절하게 사용하였을 때 좋은 점

- 내용의 연결 관계를 명확히 드러내어 준다
- 이어 주는 말을 보고 뒤의 내용을 생각할 수 있다.
- 글에서 문장의 연결 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이 쓴 글을 이어 주는 말을 이용하여 고쳐 써봅시다.

이어주는 말

아래의 단어들을 빈칸에 써 넣으세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만, 그러면(그럼), 그런데, 그러니까, 그리고, 왜냐하면, 하지만

1. 누나는 노래를 정말 잘해요. _____ 춤도 잘 춰요.

2. 아직 뜨거워. _____ 좀 이따가 먹어.

3. 가 : 그 영화 정말 별로더라.
   나 : _____.

4. 이쪽으로 쭉 가세요. _____ 백화점이 보일 거예요.

5. 벌써 4월이 되었다. _____ 날씨는 아직도 춥다.

6. 이 식당 맛있군요. _____ 왜 이렇게 손님이 없을까요?

7. 오늘은 일찍 집에 가야 해요. _____ 집에 강아지가 혼자 있어서요.

8. 형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_____ 창문을 열었어요.

9. 저는 집에 가고 있었어요. _____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10. 어제는 비가 많이 왔어요. _____ 학교에 안 갔어요.

11. 가 : 눈이 많이 오네요. 길 막히겠어요.
    나 : _____ 우리 지하철 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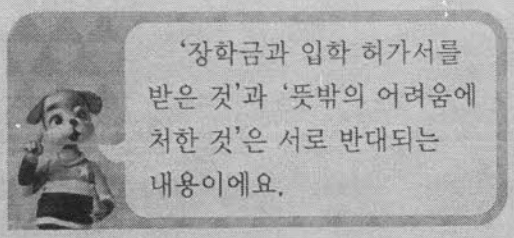
12. 우리는 정말 사랑했어요. _____ 부모님의 반대 때문에 결혼하지 못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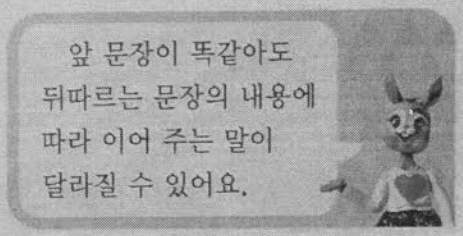
앞뒤 문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찾아 빈칸에 써넣어 봅시다.

(1) 보기

그리고, 그러나, 그래서

- 강영우 박사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장학금과 입학 허가서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뜻밖의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 강영우 박사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장학금과 입학 허가서까지 받았습니다. _____ 주변 사람들로부터 학교생활에 필요한 다른 도움도 제공받았습니다.
- 강영우 박사는 미국의 대학교에서 장학금과 입학 허가서까지 받았습니다. _____ 경제적 어려움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어려움을 딛고 대학에 입학한 강영우 박사는 대학 생활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_____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하여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 어려움을 딛고 대학에 입학한 강영우 박사는 대학 생활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_____ 강영우 박사와 같은 시각 장애인이 대학에서 공부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 어려움을 딛고 대학에 입학한 강영우 박사는 대학 생활 내내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_____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2) 보기

-고, -지만, -여

- 강영우 박사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어려움을 극복하 _____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 강영우 박사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어려움을 극복하 _____ 미국의 대학교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도 하였습니다.
- 강영우 박사는 장애인을 무시하고 차별하는 어려움을 극복하였 _____ 그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고'와 '-여'는 하나의 같은 문장에서 쓸 수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어떤 의미를 나타내며 문장을 연결하는지 생각해 봐요. '-지만'은 '그러나'와 같이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올 때 문장을 연결해 줘요.

4 강영우 박사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을 생각하며 짝과 함께 가상 면담을 해 봅시다.

(1) 「세상을 밝힌 꿈」을 읽고 강영우 박사에게 묻고 싶은 내용을 질문 목록으로 만들어 봅시다.

질문 목록

① _____

② _____

③ _____

고급과정 쓰기 (10/5) 이어 주는 말

2019년 나의 여름 방학

이름 : _____